



교내 장애인 화장실

실태 조사



인권엠베서더



장애는 개인이 아닌 상황에 달려 있다.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없이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제공된다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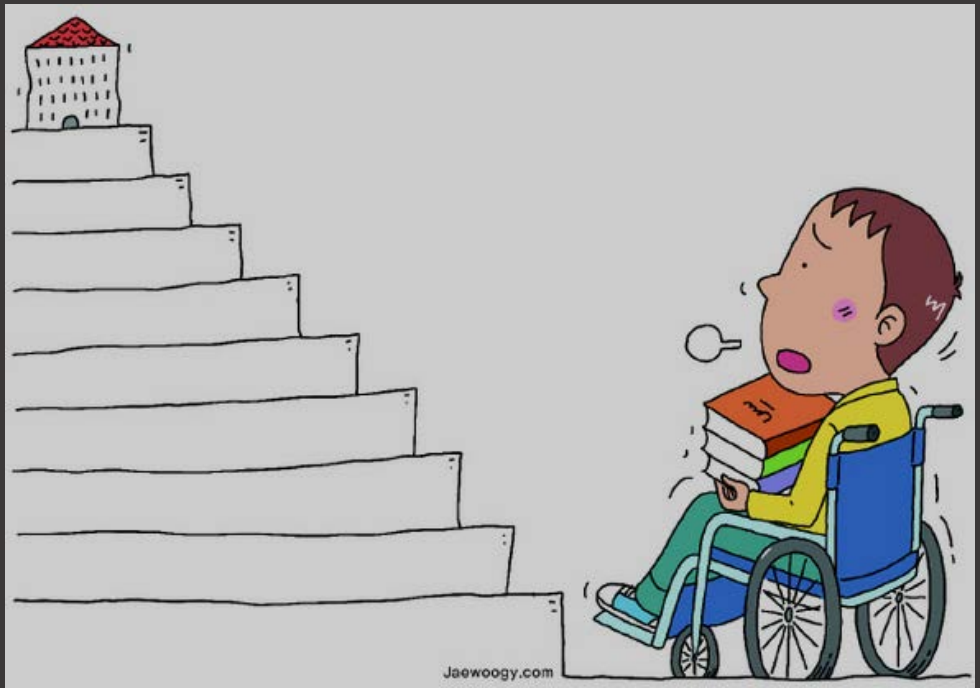
인권엠베서더

이처럼 환경을 바꾸어 모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리어 프리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계단 옆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이 그 예이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단어 그대로 배리어(Barrier, 장벽)로부터 프리(Free)한 세상을 만들자는 운동으로, 고령자나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는 물리적, 혹은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





이러한 시설들은 사용하는 사람보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지라도 원활한 사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배리어 프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상세한 위치 정보 (-관 -층 -호 앞)	
화장실 칸 내 안전바 상태	
각도 거울, 세면대 여부	
화장실 입구 문 & 장애인 전용 칸 문의 종류	
휠체어 회전 반경(휠체어가 돌 수 있는 바닥 면적을 m*m로 표시)	
접근 통로의 배리어프리 여부	· 턱/계단 · 0.8m 이하의 통로 · 자동문이 아닌 문(특히 무거운 여닫이문)
화장실 칸 내 적재물의 위치, 종류, 개수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나 장애인 전용 시설은 고장이 발생해도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고장이 긴 시간 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교내 건물 중 수업이 개설된 건물을 조사하여 장애인 화장실의 필요한 개선사항을 종합해보았다.



안전바가 흔들리거나 빠져있는 경우, 문 잠금장치
가 부서져 경우, 변기가 고장 나있는 경우, ...

이용 도중 불편을 느끼거나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A씨는

“생각보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너무 적어서 놀랐고, 비장애인 화장실은 시설이 고장나거나 더러워지면 오래 걸려도 하루 안에 고쳐지는 데에 비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방치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

치과대학 여자화장실,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다.



또한, 현재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청소 도구를
적재하는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사를 하는 동안 청소노동자 분들을 만나
장애인 전용 화장실에 대한 생각도
들어볼 수 있었다.

00관에서 안전바에 걸려있는 쓰레기봉투를
치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자
"여긴 잘 쓰지도 않는데"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이후 쓰레기봉투는 치워 주셨다.*

so, what's the
problem?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는 있게끔
한 개의 화장실에만 비품을 놓았다.”라고
말씀하신 **관의 청소노동자 분들도
유사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다.



학교 전체에 50개 남짓인 장애인 전용 화장실 중 일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창고로 사용된다면, 이를 이용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충분하지 않은 화장실 개수가 언제 더 줄어들지 예측할 수 없다.



제 3 공학관

많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들이 사용 가능해져
장애인 학우들이 더 이상 장애를
체감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 실태 조사에 참여해주신
32명의 학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권엠베서더